

마켓픽

글로벌 금융주 강세, AI 변동성 줄여줄 열쇠

글로벌 증시에서 금융주 아웃퍼폼, 국내 증시 반도체 중심 포트폴리오 보완 가능

Strategist 김재승

jaeseung.kim@hms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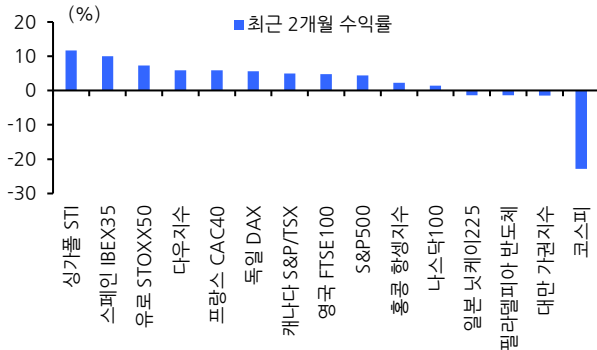
최근 코스피는 물론 나스닥과 대만 가권지수 등 AI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 동안 AI 관련주 의존도가 낮고, 금융-에너지-산업재 비중이 높은 유럽과 아시아 금융허브 국가들의 증시가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1). 최근 2개월간 스페인 IBEX35 지수는 +10.0% 상승했고, 유로 Stoxx50와 영국 FTSE 100이 각각 +7.3%, +4.8% 상승하는 등 유럽 증시는 호조를 보였다. 아시아 증시에서도 싱가포르 STI 지수가 2개월간 +11.7% 상승했고, 홍콩 항셱 지수도 2개월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최근 1달간 +7.9% 급등했다.

유럽과 싱가포르, 홍콩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한 가운데, 높은 금리와 AI 투자에 대한 피로도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글로벌 자금이 금융주를 중심으로 에너지와 산업재 등 전통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ECB가 3년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긴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요국 PMI는 50선을 상회하고(그림2),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도 양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장기 금리 상승과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금융주 성과에 유리하다. 미국 증시에서도 최근 한달간 금융주가 아웃퍼폼했다(그림3). 스페인, 영국, 싱가포르, 홍콩은 지수 내 금융업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그림4).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유럽 Stoxx50 기업들의 실적은 2년간의 역성장장에서 벗어나 +18%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5).

금융주와 유럽 증시 강세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진 않는다. 현재 나타나는 금융주 중심의 순환매는 AI 관련 투자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급이 쏠렸던 반도체와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 금리 상승에 수혜를 받는 금융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성격이다. 2010년 이후 인터넷-플랫폼 혁명을 통해 미국 빅테크들의 이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에 상당기간 아웃퍼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AI 기업들의 수익화가 본격화되면 AI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가 재차 나타날 것으로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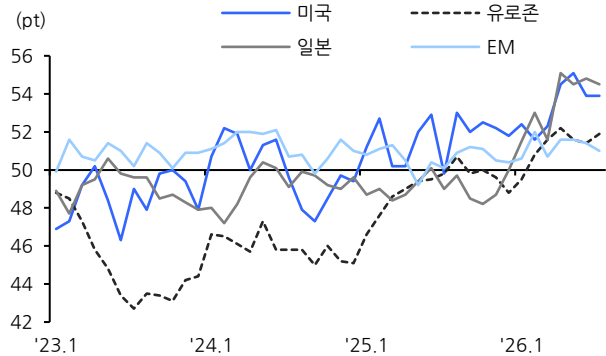
다만 국내 증시 관점에서는 금융주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는 AI 투자와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업종으로 쏠림 과도해, AI 수요와 수익화, 메모리 공급 증가 뉴스에 시장 전체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금리 상승 국면에서 AI CAPEX의 수익성 우려와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며 반도체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반면 금융주는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수혜를 받는다. 최근 3개월동안 코스피 업종 가운데 보험과 은행 등 금융주가 아웃퍼폼했다(그림6). 금융주의 구조적인 강세 전망은 아니더라도, 국내 증시의 반도체 중심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 상승 리스크를 헤지하는 보완 자산으로 금융주를 편입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최근 2개월 유럽과 아시아 금융허브 증시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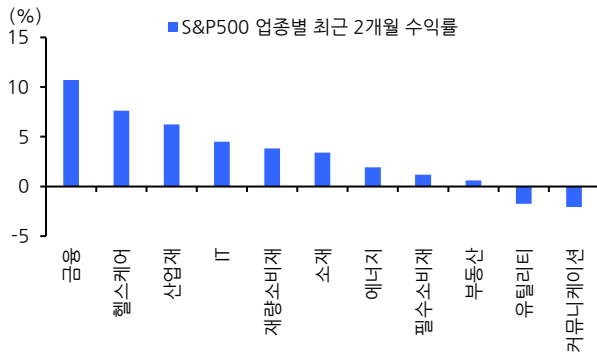
주: 주요 지수의 2개월 수익률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2〉 주요국 제조업 PMI 50선 상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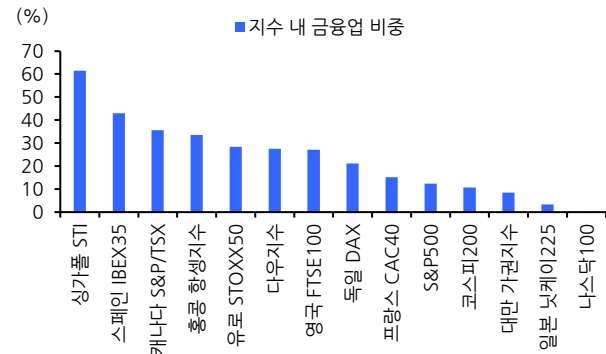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3〉 미국 증시에서도 최근 2개월간 금융주 아웃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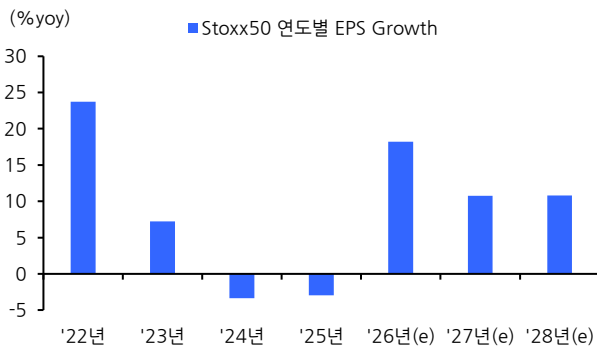
주: S&P500 GICS Lv1 기준 업종별 지수 2개월 수익률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4〉 유럽과 아시아 금융허브 국가들 금융주 비중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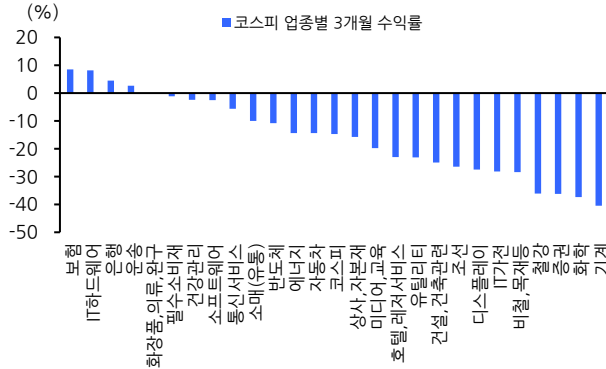
주: 영국 FTSE100, 독일 DAX, 프랑스 CAC40, 코스피200, 일본 닛케이225, 나스닥100 등 구성종목 제공되지 않는 지수는 대표 ETF를 통해 업종별 비중 추정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5〉 Stoxx50 연도별 EPS 전년대비 증감율, 2026년 급등



주: Stoxx50 지수의 연도별 EPS 전망치의 연도별 증감율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6〉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 보험과 은행 등 금융주 호조



주: 코스피 WICS 26개 업종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 김재승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